

“카리스마 깨는 유쾌함이 매력”

뮤지컬 ‘데스노트’ 배우 장지후
“굵은 목소리 어울린다 생각”
상반된 두 이미지 살리려 노력



배우 장지후 /연합뉴스

“처음에 관객들에게 캐릭터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놓고, 그걸 조금씩 무너뜨리면 극적인 재미가 생겨요. 그 반전 매력이 관객들의 마음을 여는 포인트죠.”

최근 뮤지컬 ‘데스노트’가 공연 중인 서울 송파구 롯데씨어터 연습실에서 배우 장지후(35)를 만났다.

다음 달 18일까지 공연하는 이번 시즌에 ‘류크’ 역으로 새로 합류한 장지후는 카리스마와 영동함을 오가는 ‘극과 극’의 매력으로 관객들의 호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류크는 이름이 적힌 사람은 반드시 죽는 ‘데스노트’를 인간세계에 떨어뜨리고, 이를 주운 라이토의 행보를 지켜보는 사신(死神)이다.

연극 ‘환상동화’에서 인연을 맺은 김동연 연출의 제안으로 오디션에 보게 된 장지후는 류크 역을 두고 “내가 입으면 잘 맞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실제 그는 186cm에 달하는 큰 키에 선 굵은 외모, 허스키함이 섞인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등장과 동시에 관객을 압도한다.

장지후는 “사람들은 찌릿한 고음에도 압도되지만 묵직하게 깔리는 목소리에 더 압도되기도 한다”며 “제 목소리가 원래 저음이고 굵어서 류크와 어울릴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강해 보이는 인상과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장

지후가 연기한 류크의 매력은 이와 대조되는 ‘잔망미’에서도 발현된다. 사람을 죽이는 데스노트의 규칙을 설명하다 말고 여자 아이돌 미사의 춤을 엉겨주춤 따라 추고, 라이토에게 애교와 협박을 섞어 애착 증세를 보이는 과잉인 사과를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장지후 역시 연기할 때 류크가 가진 상반된 두 이미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만들려고 신경을 썼다고 했다.

“류크가 유쾌하게 보이는 장면과 그렇지 않은 장면을 구별해두려고 했죠. 그 겹(차이)에서 류크의 매력이 나오거든요. 관객들은 초반에는 절대 그렇지(가볍지) 않을 것 같던 캐릭터가 살짝 살짝 그 이미지가 무너지면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엄해 보이거만 하던 아버지가 세발자전거

를 타면 웃음이 나는 것과 비슷하죠.”

류크는 원작 만화에서부터 워낙 단단하게 다져진 캐릭터지만, 이를 연기하는 배우마다 느낌은 다르다. 장지후와 함께 류크로 출연하고 있는 서경수가 귀여운 반전 매력을 보여준다면, 장지후의 류크는 버럭 화를 내거나 투덜거리는 등 거칠지만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을 내뿜는다.

“류크에게 라이토는 ‘특별한 아이’는 맞아요. 악한 사람을 다 죽여서 선한 사람만 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라이토를 재밌게 바라봤죠.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하지?’, ‘이거 참 재밌네’라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제법 따뜻해 보이는 모습도 있지만, 라이토와 정이든 건 아니에요. 라이토는 류크의 한낱 흥밋거리에 지나지 않죠.” /연합뉴스

“이미지 끼워 맞춘 과거...이제는 있는 그대로”

‘걸스데이’ 만연니 박소진
아이돌에서 어엿한 배우로



배우 박소진 /눈컴퍼니 제공

“‘걸스데이’로 데뷔했을 때는 저를 깎아서 만들어진 이미지에 끼워서 맞춰던 것 같아요. 음악이 좋았는데도 재미를 못 느꼈어요.”

그들 ‘걸스데이’의 애교 남치던 만연니 박소진이 아이돌 가수 출신에게 으레 따라 붙는 연기력 논란을 당당히 떨쳐내고 배우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ENA 드라마 ‘보라! 데보라’ 중역을 앞두고 최근 서울 중구 장충동 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박소진은 “연기를 시작한 후 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다”며 “재미를 느끼면서 일한다는 게 데뷔 초와 가장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소진은 ‘보라! 데보라’에서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커리어 우먼 이유정을 연기했다. 남편이 연애 때와 달리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섭섭함을 속으로 삭이는 인물이다.

박소진은 “부부 생활을 직접 겪어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저기서 주위들은 내용들이 유명인데 부부의 에피소드에 잘 담겨있었다”며 “캐릭터를 맡은 이유는 직접 그 생활에 들어가서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진은 tvN 새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원 원장 모재인 역을 맡았다.

생활비를 걱정해 본 적 없고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지만,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캐릭터다.

박소진은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환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날이 서 있는 사람인데, 그런 날 선 부분을 깎아내려고 애를 썼다”며 “사람들을 풀어주는 동시에 예리함을 잃지 않는 캐릭터를 구상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이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는 박소진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는 원동력에 대해 “먹고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일이 끊겼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기회가 생기면 거르는 것 없이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기할 때 이제 가수가 아니라 배우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정말 다행이에요. 배우로 직업을 바꾸고 나서 가장 좋은 건, 저를 제 모습 그대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연합뉴스

tvN ‘이로운 사기’ 시청률 4.6%로 출발

천우희 주연...천재 사기꾼 연기

배우 천우희가 천재 사기꾼을 연기한 드라마 ‘이로운 사기’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3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 방송된 tvN ‘이로운 사기’ 첫 회 시청률은 4.6%를 기록했다.

‘이로운 사기’는 지능지수(IQ) 180의 천재 사기꾼 이로운(천우희)과 지나친 공감 능력 때문에 고통받는 변호사 한무영(김동욱)의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다. ‘그 남자의 기억법’ ‘낮과 밤’ ‘별종별’ 등의 이수현 PD가 연출한다.

첫 방송에선 본격적인 이야기 전개에 앞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10년째 수감돼 있던 이로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과정을 다뤘다.

이로운의 부모를 살해한 진짜 범인이 뒤늦게

자수하고, 진범의 변호를 맡은 한무영은 점점 도중 피해자를 조롱하는 진범의 목소리를 녹음해 언론에 공개한다.

다만 진범의 자수에 의문을 남기는 장면도 있었다. 진범이 자수하기 전날 이로운이 교도소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데 상대방이 “곧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로운은 뛰어난 암기력으로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한편 한무영에게 접근해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얻으려 한다. 그러나 한무영은 이로운이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알아챈다.

‘이로운 사기’의 주연 김동욱은 KBS 2TV에서 방송 중인 월화드라마 ‘어쩌다 마주친, 그대’에도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다.



tvN ‘이로운 사기’ /tvN 제공

같은 날 밤 9시 50분 ‘어쩌다 마주친, 그대’ 9회는 마찬가지로 4.6%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8회가 기록한 자체 최고 시청률 4.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연합뉴스

김남주, 새 드라마 ‘원더풀월드’ 출연

더퀸AMC는 소속 배우 김남주(52)가 새 드라마 ‘원더풀월드’ (가제)에 출연한다고 30일 밝혔다.

‘원더풀월드’는 억울하게 어린 아들을 잃은 주인공 은수현(김남주)이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해자에게 직접 복수하는 내용을 다룬다. ‘트레이서’ ‘보이스 시즌2’의 이승영 PD가 연출한다.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제작할 예정이다.

극 중에서 김남주는 심리학 교수이자 유명 작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아들을 잃고 복수에 나서게 은수현을 연기한다.

김남주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2018년 3월 종영한 JTBC ‘미스티’ 이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



배우 김남주 /더퀸AMC 제공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KBS뉴스광장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중 9:30 KBS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다큐 인사이트 11:50 만남 다큐 호수인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7:00 해 별만한 아침 1부 8:05 해 별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타임 9:20 굿미야 굿미야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어쩌다 마주친 그대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하늘의 인연 8:30 생방송 오늘 아침 9:20 굿미야 굿미야 10:45 뽀뽀 좋아 11:45 주니토니 이야기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인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00 예니컬러리 11:30 나비의 모험	6:10 세계테마기행 7:00 시골 7:15 하프와 친구들 7:45 연마 깨투리 8:00 당당명 유치원 8:20 웃기는 처음 영어 9:05 최고다. 호기심 딱지 9:2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10 한국의 물레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숲이 그린 집 1:00 평생학교 1교시 2:45 평생학교 2교시 4:00 영어 스토리 타임 5:00 페피피 6:10 마사와 곰 7:00 한국의 물레길 7:50 귀하신 똥 8:40 세계테마기행 9:35 한국기행 9:55 다큐멘터리 10:50 숲이 그린 집 11: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6:00 6시 내고향 7:00 KBS뉴스7 7:40 일꾼의 탄생 8:30 굿미야 굿미야 9:00 KBS뉴스9 10:00 2022 KBS 경영평가 결과 10:10 생로병사의 비밀 11:00 KBS뉴스라인W	6:30 2TV 생생정보 7:50 비밀의 여자 8:30 옥탑방의 문제아들 9:45 과학수사대 스토리킹 11:50 걸어서 현장 속으로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하늘의 인연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일타강사 10:30 라디오스타	6:50 생방송 투데이 7:30 SBS 8 뉴스 9:00 골 때리는 그녀들 10:40 편먹고 공치리5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선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5월 31일 (음력 4월 12일)

<p>子 48년생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하라. 60년생 해주고 공 없는 소리 듣는다. 72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지 마라. 84년생 관한 오해 생기니 나서지 마라.</p>	<p>辰 52년생 감정을 뒤로 하고 인내 하라. 64년생 어려울수록 부지런히 움직여라. 76년생 세상에 믿을 것은 가족뿐이다. 88년생 이성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다.</p>	<p>申 44년생 지키지 못할 약속은 못 지킨다. 56년생 벼는 익을 수록 속이는 법이다. 68년생 주변에서 인정해주는 하루다. 80년생 자만은 화를 부른다.</p>
<p>丑 49년생 헛된 생각은 하지 마라. 61년생 의욕이 넘치니 마음 가는 곳으로 하라. 73년생 서로에게 관심이 커진다. 85년생 적극적으로 나서라.</p>	<p>巳 41년생 자식 사랑이 넘친다. 53년생 걱정하던 일들이 모두 해결된다. 65년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재수가 생긴다. 77년생 승부수를 던질때다.</p>	<p>酉 45년생 잘잘못을 따지지 마라. 57년생 건강에 각별하게 신경 쓰는 날이다. 69년생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 온다. 81년생 해답은 본인에게 있다.</p>
<p>寅 50년생 낙담한 마음이 필요하다. 62년생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74년생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옳다. 86년생 해결책이 생기니 걱정마라.</p>	<p>午 42년생 초심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라. 54년생 상처 주는 언행은 삼가라. 66년생 인생의 진목은 끝까지 가라. 78년생 남 일에 휩쓸리지 마라.</p>	<p>戌 46년생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58년생 좋다면 무조건 서두라. 70년생 추진력이 대단하다. 82년생 여기저기 눈치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p>
<p>卯 51년생 흥분적인 생각을 버려라. 63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라. 75년생 지성이면 감천이다. 87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봐라.</p>	<p>未 43년생 사소한 감정싸움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라. 55년생 유혹을 뿌리쳐라. 67년생 용기를 내 추진하면 성과는 있다. 79년생 본업에 충실하라.</p>	<p>亥 47년생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59년생 한가지 뜻고 초기일관하라. 71년생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된다. 83년생 잠으면 좋은 날 있다.</p>